

KIA 야심작 신형 쏘렌토, 수입 디젤 세단과 한판승부

하반기 주목할만한 신차들

신형 쏘렌토, 기존 모델에 차체 강성 10% 강화 AG, 그랜저와 제네시스 중간급 포지셔닝 구형 BMW 뉴 X4·푸조 뉴 308 등 점유율 상승 도전 렉서스 'NX300h' 등 하이브리드카도 출시

올 상반기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국내 자동차 시장은 국산차 70만7368대, 수입차 9만4263대 등 총 80만1631대가 판매됐다.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 특히 수입차 시장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1~6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9만4263대로 전년 동기(7만4487대) 대비 26.5% 성장했다. 수입차의 주요 성장 동력은 디젤 차량이다.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차의 점유율은 68.3%에 이른다. 하반기에도 30여종의 국산·수입 신차들이 출시되며 각축전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디젤 차량의 출시만 해도 9종에 이른다. 국산차는 기아차의 쏘렌토

와 7월초 출시된 르노삼성의 SM5D가 수입 디젤 차량의 공세에 맞설 히든카드다. 하반기 주목할 만한 차량들을 살펴봤다.

●국산차 기아 '쏘렌토', 현대차 'AG', 르노 'SM5D' 하반기 출시될 국산 신차 중 가장 기대되는 모델은 기아차의 '신형 쏘렌토(프로젝트명 UM)'다. 최근 SUV의 높은 인기와 맞물려 주목 받고 있다. 상세 옵션과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초고장력 강판 비율을 53%로 늘려 기존 모델 대비 10% 강화된 차체 강성을 구현했다. 크기도 커졌다. 기존 대비 전장길이 90mm 이상, 축거가 80mm 이상 늘어나 넓고 안정적인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출시 시기는 8월 말~9월 초가 될 전망이다.

7월초 출시된 르노삼성 'SM5D'는 수입 디젤 세단의 공세와 정면 대응하고 있는 유일한 국산 차다. 1.5리터 다운사이징 디젤 터보엔진을 장착했으며, 게이트락사의 튜링 클러치 6단 변속기가 장착돼 공인 복합연비 16.5km/l(라는 높은 연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2일 현재 사전 예약 대수만 2500대를 돌파했다. 7월 중에만 800대

의 차량이 출고될 예정이다. 현대차에서는 올해 말 전륜구동 프리미엄 세단인 'AG(프로젝트명)'을 선보인다. 3.0과 3.3모델로 출시될 예정이며, 그랜저와 제네시스의 중간급으로 포지셔닝된다. 차량의 외관은 지난 부산 모터쇼를 통해 공개됐지만 구체적인 사양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제네시스급의 편의사양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 가격은 4천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수입 디젤차 9종 출시 수입차 업체에서는 하반기에도 9종의 디젤 차량을 출시하며 국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BMW에서는 뉴 X3과 X4, X6를 차례로 선보이고, 메르세데스-벤츠는 소형 SUV인 GLA클래스를, 닛산에서는 CUV 모델인 캐스카이를 선보이는 등 9종의 디젤 차량이 출시될 예정이다.

포문은 1일 출시된 푸조 뉴 308이 열었다. 6년 만에 선보인 풀체인지 모델로 실내외에 다양한 첨단 편의사양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복합연비는 14.6km/l(고속 16.4km/l, 도심 13.4km/l)이다.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1만km를 주행한 누적 평균 연비가 트립 컴퓨터상 리더당

16.7km에 미치지 못하면, 유류비 차액(리터당 1,650원 기준)을 보상에 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만큼 연비에 있어서는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BMW에서는 8월에 뉴 X3과 X4를 선보인다. X3는 2세대 X3의 부분 변경 모델로, 더욱 탄탄한 근육질 이미지로 변신했다. X3 xDrive20d 모델의 경우 이전 모델보다 마력(6마력)과 토크(2.0kg.m)도 향상됐다.

기대작은 뉴 X4다. BMW X패밀리의 전형적인 특징과 정통 쿠페의 스포티한 우아함을 결합한, 새로운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SAC) 모델이다. BMW 뉴 X4는 184마력부터 313마력에 이르는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가솔린 3종, 디젤 3종의 엔진으로 선보인다.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의 시조인 뉴 X6는 더욱 커진 차체와 편의사양을 탑재하고 11~12월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닛산은 일본 대중차 최초로 디젤엔진을 장착한 SUV '캐스카이'를 4분기 중으로 출시한다. 크라이슬러는 지프의 SUV '신형 체로키'를 출시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8월말 소형 SUV 'GLA클래스'를 출시한다. 벤츠의 5번째 SUV 모델이자 4번째 새로운

콤팩트카 모델이다. The New GLA 200 CDI 모델의 경우 49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돼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벤츠에서는 하반기에 소형 쿠페 'CLA클래스'의 4륜구동 모델인 'CLA250 4매틱'도 출시할 예정이다.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도 줄줄이 출시

하반기에는 친환경과 높은 연비를 강조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대거 출시된다. 렉서스는 콤팩트 크로스오버차량(CUV) 'NX'시리즈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NX300h'를 출시한다. BMW는 유럽 기준 47.6km/l의 연비를 자랑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i8'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력만으로 최대 37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출력은 362마력, 제로백은 단 4.4초에 불과한 가장 미래지향적인 차량이다.

포드와 링컨에서도 하이브리드카를 선보인다.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는 19.4km/l, 링컨 'MKZ 하이브리드'는 18km/l 수준의 높은 공인 연비를 앞세우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현대자동차 'AG'

르노삼성 'SM5D'▶



렉서스 'NX300h'



BMW 'i8'



푸조 '뉴 308'



벤츠 '더 뉴 GLA-클래스'

아이폰6 vs 갤럭시노트4 하반기 격돌...변수는 중국

삼성·애플, 중국 중저가모델 추격에 골머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하반기 전략 신제품으로 격돌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분기 실적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어닝쇼크'를 기록한 반면 애플은 호실적을 냈다. 양사는 각각 '실적회복'과 '지속성장'을 목표로 새 전략 스마트폰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난 분기 실적표에 큰 영향을 미친 중국에서의 성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이폰6' VS '갤럭시노트4'

애플은 23일 2014년 회계연도 2분기(4~6월)

에 매출 374억 달러, 순이익 7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6%, 12.3% 증가한 수치다. 반면 삼성전자는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매출은 52조원, 영업이익은 7조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9.5%, 24.5% 감소한 수치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년 만이다.

지난 분기 양사가 전혀 다른 성적표를 받아든 이유는 스마트폰 부분의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양사는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으로 경쟁에 나선 방침이다. 애플은 '아이폰6'를 9월 출시한다. 4.7인치와 5.5인치 두 가지 타입을 내놓을 것으

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9월 경 대화면 전략 제품군 '갤럭시노트4'를 공개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샤오미 등 중국업체 추격 거세

양사의 하반기 실적은 신제품 스마트폰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성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 분기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48% 급증하며, 호실적을 견인했다. 성장기조를 이어가려면 '아이폰6'의 중국 시장 성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고전한 결과가 '어닝쇼크'로

나타났다. 하반기 신제품으로 중국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낙관적이지 않다. 중국 기업들의 추적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삼성전자의 고전에서도 알 수 있듯 이미 중국기업들은 중저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가고 있다. 더욱이 하반기엔 프리미엄시장 공략도 강화할 예정이어서, 애플 또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실제로 상반기 중저가 모델로 중국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샤오미는 22일 5.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와 쿼터의 스냅드래곤 805 프로세서 등을 적용한 'Mi4'를 발표하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Designed by K' 사이트 오픈 기아차, 32명 전문가 새 라이프스타일 제안

기아자동차가 10명의 아티스트, 22명의 트렌드 세터와 함께하는 'Designed by K' 브랜드 사이트(http://kseries.kia.com)를 오픈했다. 자동차의 성능을 강조한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벗어나 고객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를 제안하는 기아차 K시리즈 'Designed by K'(사진) 캠페인의 일환이다.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브랜드 사이트)을 통해 기아자동차 K시리즈(K3, K5, K7) 고객에게 자동차로 도시의 문화와 트렌드를 즐기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국내 유명 아티스트와 작가, 에디터들이 대거 참여했다. 포토그래퍼 준초이를 비롯해 2013년 칸영화제 단편경쟁부 분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문병곤 감독, 파리로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탈리아 출신 영화감독 조바니 푸루 감독 외에도 김보킴 감독(비디오아트 디렉터), 정진수 감독(영상작가), 이명기 감독(영상제작자), 강지혜 감독(비디오디렉터), 심형준 감독(크리에이티브디렉터), 공요일 감독(CF감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아티스트들을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각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컬처와 필체, 영상미로 도시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선한 아이템을 K시리즈와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하는 수단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느끼게 하는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낸다...틱장애 왜?

불안·스트레스에 의한 신경계 장애 얼굴·목 등서 반복적인 증세 나타나

'틱장애가 뭐지?' 배우 이광수가 23일 첫 방송된 SBS 새 수목 드라마 '팬텀'이, 사랑이야에서 틱장애(투렛증후군)를 앓는 배우를 맡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 질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틱장애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드라마에도 반영된 것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틱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틱장애 환자는 2007년 1만 3275명에서 2011년 1만6072명으로 연평균 4.9%씩 증가했다. 0~19세 환자가 10명 중 8명

으로 가장 많았지만 20~30대도 매년 2000명의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

●이유없이 이상한 소리나 행동 반복

틱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얼굴, 목, 어깨, 몸통 등 몸의 일부분을 빠르게 반복해서 움직이는 증상이다. 짧은 시간 역제는 가능하나 오래 참는 것은 불가능하고 스트레스나 피로, 불안, 긴장, 공포와 같은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18세 이전에 발병하여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많지만 치료하지 않은 경우 성인이 되어 서서히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나 뇌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면서 의지만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면서 사회생활, 대인관계에 있어 지장을 초래한다. 틱장애 어린이들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증세, 불안장애, 학습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필요하다.

●심리·신경·행방학적 치료 주목

틱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약물이다. 하지만 약물치료는 단기효과는 있지만 쉽게 재발한다. 최근에는 약물을 통한 일시적 치료보다는 틱장애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심리적, 신경학적, 행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치료하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

틱치료에 도움이 되는 신경학적 훈련으로는 각기 다른 감각들의 통합을 도와 신경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 감각통합훈련이나, 호흡을 통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바이오피드백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해 틱 치료 및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을 준다. 한방에서는 정신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한약과 침 치료로 증상을 개선시킨다. 수인재한의원 안상훈 원장은 "틱장애는 기본적으로 두뇌 시스템이 불안정해 발생하는데, 그 근본에는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 두뇌 발달과정 중 선천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며 "틱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습관과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혁 기자 ajaplo@donga.com 트위터@ajaplo